

DMZ 세계평화공원 내 UN 제5사무국 유치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nducement of the 5th UN office in the Korean DMZ World Peace Park

Si Gu Jeong*

Sun Moon University, 221 Sunmoon-ro, Asan, Chungnam, Korea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a possibility of inducing the 5th UN office in the Korean DMZ world peace park. The Korean DMZ is a geographical region that was established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27 July 1953) according to the Armistic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Forces (UNF) and North Korea. Peace park has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peace and cooperation in a boundary areas. President Park strongly expressed a strong interest to establish DMZ world peace park with the United Nations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nd Dresden Declaration (28 March 2014,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House and Senate Joint (08 May 2013). DMZ world peace park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laxation and confidence to enhanc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inducement of the 5th UN office with DMZ world peace park requires the following three improvements. First, we may introduce the New Village Movement ODA projects to North Korea. Second, we may play a role using a diplomatic skill in emphasizing a necessity of the 5th UN office in DMZ. Third, a control tower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direction supervision of President or the Prime Minister which can hold a comprehensively control of the DMZ-related businesses. One city in Gyeonggido (Paju) and three cities in Gangwondo (Cheolwon, Yeonchun, and Goseong) now compete with each other to host the DMZ world peace park. The Department of Unification in Korea is going to develop a plan to determine candidate regions considering the current condition of South-North relations. Beyond ecological and economic profit,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also resolved by advancing the level of trust.

* Tel.+82-2-470-9277. E-mail. jsg9277@hanmail.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May. 27, 2015 / Revised: Aug. 17, 2015 / Accepted: Aug. 20, 2015

Key words: demilitarized zone(DMZ), world peace park, inducement of the 5th UN office, improvement of North economy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지금부터 실현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내 UN 제5사무국의 유치를 위한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DMZ는 6.25전쟁 말에 UN군과 북한에 의해 설정됐다. 평화공원은 접경보호지역에서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조성의 중요한 수단이다. 박대통령은 취임 초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2013.5.8)과 독일에서의 핵안보정상회담과 드레스덴 선언(2014.3.28)에서도 남북한과 UN이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설립된다면 남북한 문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DMZ 세계평화공원과 병행하여 'UN 제5사무국'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북 경제지원 사업과 설득에 의한 관계개선, 둘째, 국제사회에 대한 UN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한 외교력 필요, 셋째, DMZ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된 컨트롤타워의 설치 등이다. 현재 경기도의 파주, 강원도의 철원, 연천, 고성 등이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후보지 조사 결과와 추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움직일 전망이다. 남북관계는 지금부터라도 생태적·경제적 이익을 넘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남북 간의 위기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DMZ위기관리, 세계평화공원, UN 국제기구, 북한경제 개선

1. 서론

오늘날 세계는 냉전체제가 무너진 후 21세기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다양한 지정학·지경학적으로 충돌할 위험이 높다. 여기서 지경학적이라는 것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둘러싼 미·중의 대립,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의 각축 등 지경학적 경쟁을 의미한다. 한국은 중견국가이지만 주변국가와의 상대적 격차로 한계가 있다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즉, 한국은 동북아의 충돌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혜, 전체적(holistic) 관점의 대안 모색, 정부 내의 긴밀한 소통, 능동적인 주인 의식 등이 필요하다.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 1~3위, 9위, 군사비 1~3위, 8위의 강대국이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창설(2011. 6. 15)하여 대북 방위력을 증강시켜 왔다. 그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외교력으로 국제적인 이해를 구하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의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국제무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DMZ(Demilitarized Zone: 이하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하여 남북통일 문제와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당시 북한의 김양권 통일전선부장은 개성공단이 잘 돼야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세계평화공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 당시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됐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하여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4: 10-12).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시작됐다.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대아산 근로자 억류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갈등이 이어져왔다. 2013년 들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위협 발언에 이어 동년 4월 3일 개성공단 출입 제한조치를 감행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다가 수차례의 실무회담을 거쳐 133일 만에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DMZ는 6·25전쟁의 정전협정으로 1953년 7월 27일에 만들어졌으니 60여 년 동안 남북 간에 있어서 긴박한 대치의 현장으로 지속되고 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 2km 떨어진 거리인데 남북으로 DMZ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있다. 그러나 현재 비무장지대의 전 지역에서 남북의 직선거리 4km가 유지되는 곳은 거의 없고 가장 근접한 곳은 1km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DMZ의 동서 간의 거리는 약 248km의 선형 공간이며 DMZ의 면적은 907km²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0.5%에 해당한다. 원래 DMZ란 ‘군 병력과 시설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GP는 한국이 보유한 96개의 3배 정도인 28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DMZ에 뿌려진 지뢰는 약 20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DMZ 내의 판문점은 공식적으로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이라고 하며 UN과 북한군에 의해서 관리된다.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에서는 DMZ에서 군사역량을 철거할 것을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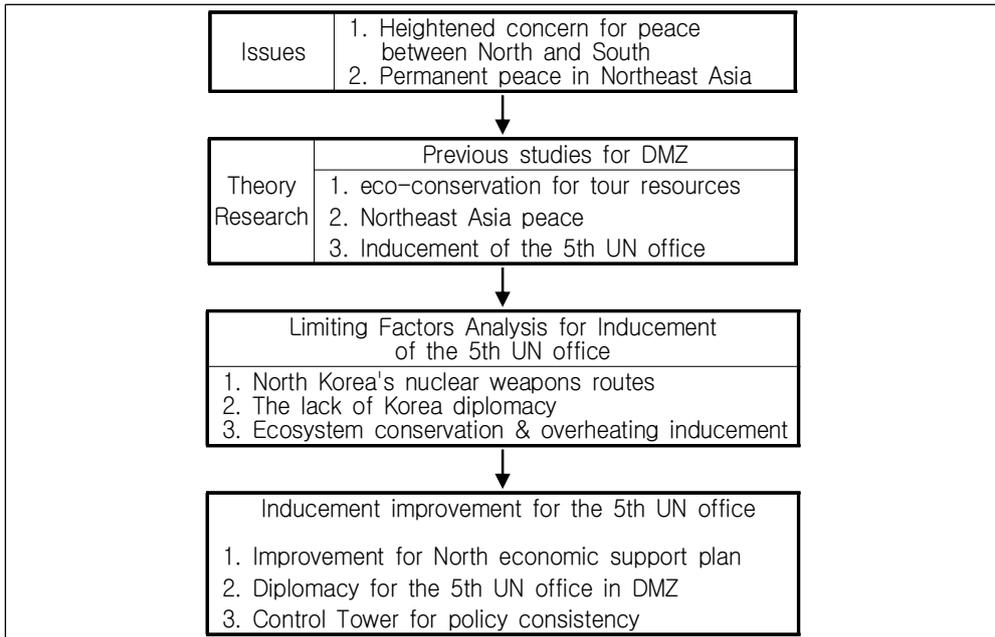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국내적으로도 남남갈등에서 벗어나 38선분단과 DMZ 형성에 대한 역사적·민족적 이해로 관련 NGO, 환경단체, 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평화적인 해결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Yaziji, 2009: 123-145).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면서 북한에게 이를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는 것도 관철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이 대치 중인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낙후된 북한에 대하여 비전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략으로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도에도 ‘통일대박론’에 이어서 동년 7월에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통일기반 조성의 원년으로 설정한 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한 상태이므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금강산 관광재개를 비롯한 남북교류가 본 궤도에 오르면 남북 간의 세계평화공원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Jeon, 2013: 2). 즉, 통일부의 ‘2014 통일백서’에 의하면, 세계평화공원의 조성 방향에 대해 남북한·UN 등 국제기구 협력을 토대로 추진하고 공원 입지는 남북한 DMZ를 모두 포함하며 가급적 DMZ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남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세계인에게도 개방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5).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이 남북은 물론, 전 세계를 지지를 받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생태친화적인 평화를 상징하는 공원을 짓겠다는 것이다.

최근에 세계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 중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IS와 북한의 이상화·공포정치를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는 이념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념적 문제로 분단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에 DMZ 세계평화공원을 유치하여 이념적인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UN 제5사무국이 설립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UN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에 대한 배려도 될 수 있다. 세계인구 71억 명 가운데 아시아 인구가 45억 명으로 세계 전체의 60% 정도가 거주하지만 아직까지 아시아에는 UN사무국이 없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교 전략을 편다면 UN회원국에 대하여 충분한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을 설득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남북이 힘을 모아 교류를 한다면 DMZ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하여 세계적인 생태계 및 관광자원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가 될 것이다. 또한 남북의 화합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기반이 되므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소득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보여 진다.

한국과 같이 분단국가로 있었던 독일은 정식으로 1990년의 통일 이후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볼 때에 그들은 통일 이전부터 먼저 정치적인 색채는 가급적으로 피하고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동독과 소통을 해 왔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은 독일의 이러한 성공 사례를 잘 응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모범적인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잘 이용하여 한반도 DMZ 세계평화공원과 병행하여 세계적 분쟁, 저개발국가의 발전, 한반도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UN 제5사무국과 같은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면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지금부터 실현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내 UN 제5사무국의 유치를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분석의 절차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Research Procedures

II. 국제기구 유치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1. 국제기구 유치의 필요성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정의나 합의된 국제법적 정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3개 이상의 정부 간 혹은 비정부간 회원들이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조직”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현재의 UN사무총장을 배출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다양한 기구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Park, 2015: 13-16).

첫째,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적 협력과 다자적 외교를 함으로써 국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즉, 국제기구는 국제평화와 협력, 한국이 지향하는 국가적 번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국내에 존재하는 국제기구는 한국의 다자외교와 국제협력을 촉진케 하는 외교력의 초석이 될 것이다.

둘째, 국제기구는 국제적 영향력의 수단과 국가적 위상이 될 수 있다. UN사무국과 같은 국제기구의 소재는 그 자체로서 국력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세계의 주요선진국과 도시는 중요한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다. 탈냉전시대에 개발, 난민, 빈곤, 종교적 이념 등의 새롭게 국제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역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국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국제기구는 국제적 인력 진출을 할 수 있는 고용확대와 국제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장이 될 수 있다. 한국인의 국제적 활동이 확대됨으로써 국제기구 인력진출이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국제기구가 유치될 경우, 기구소재 국민들의 취업기회는 보다 쉽게 확대될 것이다.

넷째, 국제기구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국제기구공무원과 그 가족의 상주로 인하여 내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종의 국제회의, 컨벤션사업 등으로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국제기구는 국민들의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제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기구는 다양한 인종, 종교, 그리고 국적으로 구성된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세계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세계시민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아울러 NGO 등 시민사회와의 제휴 혹은 연대를 함으로써 지구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는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도 국제화를 위한 전략에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국제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외국 자본 및 다국적 기업유치로 인하여 지방발전을 위한 방안은 보편화되어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에서도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서울과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지방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때 DMZ 세계평화공원 내에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매우 신선하면서도 유용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차게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DMZ에 대한 선행연구

남북 간에 지금까지 40여 년 간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합의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설득력 있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도발적이며 미국 정부도 북한의 도전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Lee, 2014: 153-168). 그동안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① DMZ에서의 생태보존을 통한 관광자원, ② 동북아 평화, ③ UN 제5사무국 유치 등의 크게 3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돼 왔다.

첫째, 생태보존을 통한 관광자원에 대한 연구에서 Kim, Jeong-hoon & Kim, Jee-dong(2014: 272-277)은 세계평화공원과 국제관광을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평화적인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 간 대립의 갈등, 북한의 선군정치, 북한의 폐쇄성(개방에 대한 두려움), DMZ내 경제적 공동이익의 부재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Kim,

Nan-yong(2010: 55-75)은 DMZ에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장기적, 접근으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중요시했다. 또한 Valérie Gelézeau(2014: 259-265)도 2003년 9월 금강산 버스 투어가 시작되고 2004년 9월 개성공단이 열리면서 2007년 5월부터는 남북화물철도 노선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남북 간의 '탈경계화'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Kim, Jae-han(2014: 22-30)은 현재 남북 간에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서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둔 채 평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평화가 성립되는 사례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할 하여 관광객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성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의 상호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도 어떤 구조물의 장치보다는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와 공존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 중요한 것이다. 최근 매년 이곳으로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70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북한 당국이 제외된 관광자원의 개발로는 긴장관계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설상 북한이 참여한다고 해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 사건(2008. 7. 11)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DMZ를 통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연구에서 Lee, Hyo-won(2014: 377-408)은 향후에 실효적인 대북 접근의 기본 방향으로 북한을 설득하여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남북한이 정치적·경제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개발, 동북아 주변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Jeon, Bong-geun(2014: 16-18)은 북한정세 변동 시나리오와 신뢰 프로세스 이행전략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한반도 평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 남쪽은 UN군 총사령관이, 북쪽은 중국군과 북한군 사령관이 관할하므로, DMZ 평화공원 프로젝트는 남북이 주도권을 잡고 추진하되, UN군사령부, 정전위 등 관련 국가와 기구의 참가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Ueom, Tae-am(2013: 9-10)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긴 호흡으로 정교한 전략으로 진행하되 단기간 안에 그 성과를 낸다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국가들이 협력하여 신뢰 구축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적인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적인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안정과 군사적 긴장완화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DMZ내 UN 제5사무국 유치에 관하여 Park, Heung-soon(2015: 11-27)은 한반도 정착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 조성방안으로 DMZ 평화공원조성 관련하여 UN 제5사무국 유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취임으로 인하여 국제기구 유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정부는 현재까지 제시된 제안과 논의를 기초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종합적 마스트 플랜(방향, 원칙 및 정책적 의지, 청사진 등)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정책 비전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명분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까지 DMZ 세계평화공원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생태계 보존을 통한 관광 자원 개발과 동북아 평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DMZ 세계평화공원과 병행하여 UN 제5사무국의 유치운동에 관한 연구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UN 제5사무국 유치에 주안점을 두고 유치에 있어서의 제한요인과 그 대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studies

Researcher	Topic	Highlighting details	The difference of the study
Kim, Jeong-hoon Kim, Ji-dong (2014)	International tour resources	Concerns about the first army politics of North Korea	Alternatives for North Korea's open fear
Kim, Nan-yong (2010)	"	Tour resources for peace ecosystem	Alternatives for North Korea relations
Kim, Jae-hyan (2014)	"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DMZ trust process	Joint development of tour resources with the North
Lee, Hyo-won (2014)	Constitutional Principle	Emphasis on the special law	Practical alternatives to improve relations to North
Jeon, Bong-gun (2014)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Relaxation of military tension	Participation Including UN, China, Russia, Japan
Ueom, Tae-am (2013)	"	Peace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Joint participation of industrialized countries for DMZ development
Park, Heung-soon (2015)	Inducement of the 5th UN office	Emphasis on the Inducement of the 5th UN office	Peace Community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avoidance

III. UN 제5사무국 유치의 제한요인

1. 북한의 핵무기 병진노선

국방부의 ‘2014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소형화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강도 일대의 군수시설 경비와 북·중·러 접경지역의 군사력 보강 등을 위해 군단급 부대인 12군단을 창설하였으며 공군을 중심으로 전체 병력이 1만여 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Song, 2015: 60-63). 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60년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43만 건을 넘는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대규모 침투와 국지도발이 약 3000건에 이른다. 최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남북한 해군 간에 총 3차례(1999년, 2002년, 2009년)에 걸친

주요한 해상 교전이 발생했다. 급기야는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그해 11월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어져 남북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북한은 2012년 4월의 개정헌법을 통하여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하였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2011. 12. 17) 직후 김정일의 가장 중요한 혁명 유산으로 ‘핵과 인공위성, 새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을 내세웠다(North Korea Works Newspaper, 2011. 12. 28). 동년 8월 미 백악관 관리가 2박3일 동안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들어갔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공식화했으며, 동년 12월 12일 은하3호 발사를 하여 성공했다. 이에 UN의 대북제재 결의(2013. 1. 22)가 있자 곧 바로 외무성 성명을 통해 ‘세계의 비핵화 이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불가능’이라고 선언했다(North Chosun Central News Agency, 2013. 1. 23).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 병진노선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북방병진의 막대한 자원과 재정을 절약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 병진노선을 취함으로써 경제건설을 위한 절박함이라는 것이다(North Chosun Newspaper, 2013. 6. 13).

오늘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변화를 주고 북한의 발전·전환을 유도하는 중장기적인 통일 준비 과정의 인식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초에 발표한 ‘통일대박론’과 이후의 ‘드레스덴 선언’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먼저 끌어내는 일이 신뢰프로세스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내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먼저 북한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Lee, Gee-dong, 2013: 219-223).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는 한미동맹을 중심한 안보협력도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대북압박 공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검토하면서 6자회담 틀을 재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한국 외교력의 부재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는 세계 강대국의 힘이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고 군사강국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 경제 1위의 미국, 최근 G2로 위상을 굳히고 있는 중국, 여전히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 연해주 개발로 세계 재도약을 노리고 있는 러시아 등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성장잠재력의 축소,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하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변화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안정된 보존도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의 이러한 국제적인 격랑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 청국, 러시아, 미국, 일제 등의 국제관계와 비슷한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한국은 국제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망국의 길로 갔던 것이다(Jeong, 2014: 62-72).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길을 거울로 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에 가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깊은 인식 위에서 세계평화공원과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목표, 원칙과 정책적 의지, 청사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마스트 플랜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

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확고하고 체계적인 정책적 비전과 의지를 공식화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사회와 UN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타당성과 명분, 그리고 선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논리는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향한 긍정적인 비전, 나아가서 동북아에 팽배한 긴장완화와 대륙철도와 같은 유라시아 평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의 제시, 둘째, 한국의 놀라운 경제적 성장은 세계의 개도국에 대한 비전과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 대해서도 국제개발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간적 매개역할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의 국제협력개발과 기후 변화 등 국제환경 문제에 크게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이 중요하다. 셋째, Post-2015 체제, 즉 금년도 9월에 출범하는 ‘UN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를 향한 확고부동한 지지 및 리더십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이 될 것이다.

3. 생태계 보존과 유치과열

DMZ 세계평화공원에 UN 제5사무국과 같은 국제기구의 신설을 가정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생태계를 자연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제기구의 편의성을 살려야 한다. 현재 DMZ 일원에는 멸종위기 종인 67종을 포함하여 총 2700여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숫자는 전체 국토에 서식하는 9600여종의 생물종 가운데 30%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DMZ 지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DMZ 중부 평야지대는 동북아시아 일부 국가에만 서식하는 두루미의 월동지(越冬地)로 세계 조류학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육상 DMZ가 끝나는 임진강 하구부터 강화도에 이르기까지 한강하구에는 전 세계에 1600여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 300여 쌍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는 2010년도에 DMZ 일원을 백두대간, 연안도서와 함께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지정했다(Lee, Chan-hee, 2013: 65).

이곳이 진정한 평화지대가 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하여 진정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물리적 공간에 대한 것은 평화를 주제로 담은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DMZ라는 용어 속에는 ‘비무장’, ‘공원(park)’, ‘세계(global)’, ‘전쟁의 치유’, ‘평화’, ‘생태’, ‘남북 간 주민’ 등의 개념이 함축돼 있다(Mulford, 1984: 13-20). 이러한 개념은 후손에게 전승시키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류의 자산으로서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국 평화는 인류의 환경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서로 경계선을 유연하게 하여 협력하며 상생하는 것이다.

DMZ지역에는 절대보전지역, 인접지, 그리고 배후지 등의 3단계 구분으로 삼위일체가 되어 조화로

운 이용과 개발이 바람직하다. 절대보전지역은 자연 그대로를 보호하는 곳이다. 인접지역은 조사 분석, 교육 관광 및 휴양 등 건전한 생태활동이 가능한 완충지역과 같다. 그리고 배후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배후지원 역할로 관광을 위해서는 놀거리, 먹을거리, 오락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와 같이 DMZ가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세계평화공원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한다. 생태, 안보, 환경 등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답론을 제공하면서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를 해야 한다. 이제는 세계평화공원이라는 거대하고 국제적인 답론에서 지역주민의 관심을 대변하고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의지와 인내를 꾸준히 지키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가열됐다. 이것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현재까지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 지자체는 서부권에서는 판문점·임진각·개성공단이 있는 파주, 동부권에서는 금강산 관광의 루트가 되고 있는 고성, 중부권에서는 한반도 중심부인 철원과 연천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지정학적 위치와 여건에서 볼 때 연천과 철원이 속한 중부권 접경지역이 양호하지만, 그 동안의 대정부 홍보과정과 지역세로 볼 때 파주가 부상하고 있으며 고성 또한 동해선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계한 유라시아 주도권을 내세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이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세계평화공원이 유치할 경우, 안보관광지로서의 대표성과 상징성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DMZ 논의에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사실 생물다양성 보존지역으로 되면 세계적인 유산으로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고 평화적인 지대를 조성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

IV. UN 제5사무국 유치 대안

1. 독일의 국제기구 유치 사례

한반도 DMZ 세계평화공원 내에 UN 제5사무국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통일 이후에 독일이 성공한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다. 독일은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UN정책을 강화하고 국가위상 제고와 국제기구의 유치효과를 얻고 있다. 독일은 한 발 더 나아가서 UN상임이사국 진출까지도 노리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전폭적인 정책의지에 의해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독일 정부의 주도면밀한 노력의 결과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 중에 가장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성공사례를 보면,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수도이전(1998)으로 구서독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구 수도의 기능과 인프라 활용 방편으로 국제기구도시(UN Campus로 명칭)로 전환하여 추진했다. 이때에 구 연방의회 건물활용의 재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구 연

방의회 건물을 UN에 기부를 했다(2006년 7월). 이를 계기로 1994년 베를린-본 법안에 의거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 하에 주로 개발, 보건분야, 환경 등을 중심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다. 현재 15개 정도의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약 1천여 명의 UN직원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는 UN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UNCCD, 1996년 창설),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 1994년 창설), UN자원봉사단(UNV, 1996년 제네바에서 이전) 등 약 150개의 관련 연구소 및 NGO 등이 소재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UN센터(UNCC, UN Congress Center) 및 부대 호텔 건설로 지속적인 투자기 계속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12: 343-363).

아울러 독일은 ‘철의 장막’이 현재 생태역사관광 지역으로 탈바꿈했는데, 통일이 되기 20년 전부터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접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수자원, 에너지, 자연재해 등을 협의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접경지역법을 제정하여 세제와 공공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했다(Choi, and Yoo, 2015: 105-114).

이러한 독일의 성공적 사례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내에 UN 제5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한 대안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 먼저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마스트 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이다. 둘째로, 독일이 통일 이전부터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38선의 DMZ를 중심으로 한 한강하구,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공동수계 관리와 홍수 방지 사업, 자연생태계 보존사업, 고구려와 고려 역사 보존사업, 에너지 협력 등을 해야 한다. 셋째로, 이러한 비정치적인 사업에서 먼저 안전권을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는 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정권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냉·온탕을 번갈아 가다보니 일관성이 떨어져 불신만 키워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도 어떤 방식이 좋은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다. 사실 세계 대전의 종결 후 미국은 ‘봉쇄’라는 국가 안보 전략을 채택해 왔다. 이 전략에 힘을 주는 것은 상호 확증 파괴의 교리였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는데 실패했다(Nelson, 2010: 24-35).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군사력에 안주할 수 없으며 DMZ 평화적 이용방안을 위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자주적인 힘으로 찾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식 개선

지금까지 한반도 DMZ에 대한 평화적 이용에 대한 발자취를 살펴보면, 1971년 UN의 DMZ 평화적 이용방안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이후, 1980년 3월부터 우리나라 대표적 건축가인 김수근 선생은 ‘SPACE(공간)’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DMZ를 기념자유공원으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펼친 바가 있다. 이후 1989년과 1990년, 2000년 등 수 차례에 걸쳐 세계평화공원 캠페인을 이어갔다(An, 2014: 24-27). 또한 1982년 2월 정부는 북한에 대해 ‘민족화합 20개항의 시범실천사업’을 제안했는데 그 중에 7개 사

업이 DMZ에 대한 평화적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에서 DMZ에 이산가족면회소, 민족문화관, 남북연합기구를 포함한 ‘평화시’ 건설을 제안했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DMZ의 평화적 이용에 합의했던 것이다.

북한은 90년대 초의 경제 파탄과 국제 고립의 탈피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남북한 UN동시가입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을 뿐 속내는 핵개발에 치중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0년 9월 4일부터 5차의 남북 고위급 본회담으로 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였다(1991. 12. 13). 이어서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추가로 정치, 군사 및 교류, 협력의 분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 46년 만에 남북한 정부 당국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 통일을 위한 획기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1994. 7. 8)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됐다가 2007년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DMZ 생태환경 및 역사유적 공동조사 연구, 2008년의 ‘DMZ 일원 생태 평화공원 조성’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처럼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담론은 40년 이상 지속돼 온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문제를 협의 추진’이라고 밝혔다. 남과 북은 이때 합의 이후에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60~70년대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월등했다. 그러나 최근의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5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남한의 1인당 명목 GDP 2만 8739달러의 3.1% 수준으로 중국(7572달러), 베트남(2073달러), 라오스(1697달러) 등 다른 공산권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수치다(세계 GDP 순위, <http://www.imf.org>).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 수준과 산업 구조는 남한의 1970년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이 먼저 북한에 대해 경제부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결국 북한도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6·25동란의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아야만 했던 나라에서 지금은 원조를 하는 공여국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1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총액은 2조3300억 달러인데 실제로 빈곤에서 벗어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것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 공여국이 됐는데, 현재 한국의 원조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있다. 2015년도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시행계획’은 총 29개 부처에서 제출한 총 875개(총사업비 9600억)의 양자 무상원조사업,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총 166개(총사업비 2900억)의 다자원조사업을 할 정도이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5). 이러한 ODA사업 항목에는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지역개발(농어촌개발), 산업 및 에너지, 환경 및 여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 구성돼 있다. 우리는 앞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용인하고 ODA사업으로 성장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ODA사업의 지원 방식은, ① 「의식교육」 + 「기술교육」 + 「수익발생적 사업」으로 구성돼야 하고, ② 여러 부처가 협력함으로써 각 기관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③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 ④ 남한의 경제적 성공 사례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의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Park, 2014: 115-130). 세계적으로 볼 때 해외 ODA지원 방식은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피원조국이 자주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Kim, and Lee, 2014: 54). 가령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 성공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면 된다’는 비전 제시와 ‘잘살아 보세’라는 실천적인 구호와 함께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신뢰와 소통, 봉사와 참여 등의 가치관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였기 때문이었다(Jo, 2013: 37-38). 이렇게 한국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의 경험을 과감하게 전수하여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어 경제도약을 이끌어 낸다면 북한의 핵무기 병진노선은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간 통행 협정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통일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가 좋아지면 인권이 개선될 것이며, 김정은 정권도 안정화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면 정권도 지속적으로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5·24 조치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비료 15톤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안유수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 7명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 물자를 싣고 방북(황해북도 사리원)은 남북한의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일로 북한 주민을 위한 새마을운동과 다름이 없다(Yunhap News, 2015. 4. 27).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축산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되 대규모 지원은 현재로선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한국 또한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값싼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양쪽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갈등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양쪽을 한 곳으로 묶어낼 수 있는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1차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이라는 합의도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302억 원을 2014년도 정부예산을 확정했으므로 기초조사 및 타당성 분석에 관한 기초적인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중심한 남북협력과 지역발전 협력 구조의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발전은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향후 남북한 경제교류 거점, 남북한 평화공단, 통일수도로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바로 400억불을 지원하고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 될 때까지 무제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적도 있다. 그렇지만 신뢰의 기반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북한은 300만 명의 아사자를 내면서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42년간 장기집권자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al Gaddafi, 1942-2011)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은 ‘맞춤형 확장 억제’로 더욱 국방력을 튼튼히 한다면 북한의 핵에 대한 ‘비대칭전략’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는 진정한 평화통일의 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ODA시행과 같은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이산가족의 만남,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북한 민생 기반 구축, 경제협력, 민족 동질성 회복 등 가능한 길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신뢰도도 쌓이게 될 것이다(Keast, 2014: 66-82). 국내적으로도 정부는 국민과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NGO를 중심한 민간부문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남북의 긴장완화에 의한 국방비 절감,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의 확보, 국가신용등급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 등의 높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UN 제5사무국 유치 외교력 발휘

한편 UN은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세계적 분쟁을 해결하며 인류의 평화를 위해 제1 UN본부(뉴욕)를 중심으로 제2~4사무국을 가지고 있다. 제2사무국(제네바)은 UN이 유럽 중심인 배경인 탓에 UN사무국으로서 유럽본부를 총괄한다는 차원에서 설립됐다. 제3사무국(비엔나)은 1979년에 핵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UN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동보조를 취하기 용이하다는 차원에서 설립됐다. 제4사무국(나이로비)도 1980년대 후반 환경과 생태계보존 문제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케냐가 중심이 돼 아프리카로 확산되면서 UN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설립됐다(성대석, 2014: 154-249).

실제적으로 UN 제5사무국에 대한 유치 운동은 이미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5월)으로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대두했던 시점에 민간차원에서 출발했다. 즉, 2009년 9월 22일, 제네바 UN사무국에서 개최된 ‘UN평화의 날’ 군축 세미나에서 NGO인 ‘한반도평화 국제협력 네트워크’(박중현 회장)가 ‘DMZ 내 UN 제5사무국 설립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중현 회장은 UN사무국 유치 최적지로 DMZ 세계평화공원 후보지 중 한 곳인 파주 장단면 동장리 근방의 장단반도를 꼽고 있다. 그는 지난 1년간 제5사무국 유치 장소를 찾아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서해 NLL(북방한계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임진강의 장단반도는 황새와 철새의 도래지이기도 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세계적인 환경보호와 평화적 이슈를 설정하는데 최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발표문에서 한반도 DMZ 내 UN 제5사무국 설립의 당위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즉, 아시아는 세계 대륙 중 인구가 가장 많고 4대 종교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테러와 갈등으로 얼룩진 열전 지역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시아에는 평화를 논의할 장소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그동안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질서를 당연시 되어왔다는 것이다. 앞으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아시아

그것도 한국의 DMZ 내 UN 제5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성이 있다는 것이다(Segye Newspaper, 2014. 6. 7).

최근에도 이 단체는 여러 번의 유치 운동을 하였는데, 2014년 5월에 미국 뉴욕에서 국제평화에 관심 있는 민간 NGO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어서 스위스 제네바 UN사무국에서 경기도와 공동 주최한 ‘2014 UN과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2014. 10. 31) 및 ‘2015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실현 국제 심포지엄’(2015. 3. 2)에서 한국 유치를 위해 논문발표와 서명운동 등을 실행한 바가 있다(Park, 2015: 14-25).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단체가 협력하여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사실 한반도의 DMZ는 한국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제의 침략과 미국·구소련·중국과 같은 강대국 간 힘의 논리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유구한 역사를 거치는 동안 1천여 번의 외침을 받았으나 단 한 번도 외국을 침범하지 않은 지극히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제 36년간의 제국주의와 6·25전쟁과 같은 냉전체제의 희생과 폐허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중진국가로 도약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를 중심한 후발국들은 한국의 발전을 모델로 하여 경제적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세계 도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도 해결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한국의 발전상은 세계경제의 양극화 문제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 남북 간의 대립은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전쟁을 하지 말자’거나 ‘군축을 하자’는 말로 통하는 세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포정치나 종교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세계 인구는 90억 명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 지구상의 종교적·이념적 분쟁에서 벗어나 세계인류가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나가야 할 대화의 장(場)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DMZ 지역은 21세기 인류의 평화·번영·화해를 위한 안식처요, 인종·종교·성차별 등으로부터 해방된 세계평화의 모델지역으로 세계문화의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인류 공유가치의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이다(Choi, and Jeong, 2015: 9-18). 지금 세계적으로 인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DMZ 세계평화공원에서는 항시적으로 세계문화의 공연장으로 거듭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지로 재탄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DMZ 지역의 운영 방식은 UN이 직접 통치하고 관할하여 그 수익금은 세계의 빈민층이나 재해지역을 구제하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실 공히 한반도의 DMZ는 세계평화도시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현재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대북 투자 모델로 북한의 고립을 먼저 타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IB에 창설 멤버로 가입한 국가는 모두 57개국에 이른다. G7 국가 중에는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가 가입한 상황인데 AIIB의 투자처로 개성공단과 그 외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의 국제산업화 단지조성 및 북한 내부의 민생 기반 투자, 복합 농촌 단지 개발, 관광·환경 사업 협력 등을 우선 시작할 수 있다. 다행히 지금 한국의 박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 간의 관계는 우호적인 점을 감안할 때 좋은 기회가 왔

다. 이후 남·북·중 국경 등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철도 물류망 연결, 에너지 망 구축, 초(超) 국경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동북 3성은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폐쇄체제에 막혀 한국·중국·북한을 잇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2천 년대 중반에 들어 신흥강국으로 부상해 현재는 G2로 불리고 있지만 중국의 빈곤문제는 심각하다. 즉, 13억 명 중 10억 명 이상이 아프리카처럼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7%대의 성장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도시 노동자들의 폭동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개방으로 한국·중국·북한·일본·러시아 등의 물류이동의 변화로 인해 동북3성에서부터 중국 내륙의 발전과 동북아의 거대한 경제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두만강 지역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합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 협력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최근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투자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할 수만 있다면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다(Hankyoreh Newspaper, 2015. 5. 6).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에 개성공단도 현재 124개의 한국 기업만이 입주해 있는데 국제화가 바람직하다. 북한의 일방적인 위협·협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우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해외 기업들의 입주가 필요하다. 앞으로 동북아의 경제거점이 형성되면 상호 합의하에 무(無)비자와 공동 화폐의 도입으로 광역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책 일관성의 컨트롤타워

최근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서 각 부처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고 혼잡해 짐으로써 컨트롤타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입력전환, 문지기, 통일자, 연결핀, 혁신, 한계인, 홍보담당, 연결자, 기획자 등으로 표현된다. 그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정보처리기능, 자원확보기능, 대외홍보기능, 조직간 조정기능 등의 크게 4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Jeong, 2015: 1-25). 이러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중심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내의 UN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에 대해 우리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컨트롤타워는 지역 간 갈등을 자제시킴과 북한과의 진정성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세계평화공원 추진 위원회’와 ‘세계평화공원재단’ 등의 설립을 하는 형태로 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조정을 할 수 있는 허브로서의 조직은 컨트롤타워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통일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DMZ 관련부서의 추진 사업을 세계평화공원과 UN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한 틀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DMZ 세계평화공원 내의 UN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는 옥상옥이나 허수아비 조직이 되

지 않기 위해서는 범부처 조정능력과 예산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부처와 다양한 단체가 각자 의견을 내며 이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컨트롤타워에는 사무국, 외교지원팀, 남북회담지원팀, 기획조정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후원홍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은 총회·이사회·임원·실무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시행하며 외교지원팀과 남북회담지원팀은 관련 외국 및 북한과의 원활한 진행을 담당한다. 기획조정위원회는 민관군의 전문가 및 여야 정치인의 소통을 담당하며 연구자문위원회는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사업추진 방안연구와 평가·자문을 담당한다. 그리고 후원홍보위원회는 언론, 기업, 종교단체, 국내외NGO, 민간 기관 단체에 대한 사업후원과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이상과 같이 컨트롤타워의 설립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통합적·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은 물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의 국내외의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8.15 광복 이후 지난 70년 동안 남북분단의 슬픔을 간직한 채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낙후와 규제의 굴레를 쓰고 지내온 배후도시들이 있다. 그동안 이들 배후도시들에 속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 평화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배후도시들도 협력하여 도로망 확충, 세계적 관광지 개발, 유관산업단지 조성 등을 설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한반도는 냉전체제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유치하면서 DMZ 세계평화공원 내에 UN 제5사무국을 유치·설치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과 나아가서는 인류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DMZ 세계평화공원의 사례를 볼 때 정치적 문제는 별도로 하고 최우선적으로 상호 경제적 발전을 중심으로 상호간 불신을 먼저 경제적 발전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도 먼저 북한과의 신뢰 관계를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호간 경제적으로 이익이 돼야 할 것이다. 남북 간에 지속적인 상호 발전을 하면서 신뢰를 구축할 때에 DMZ 세계평화공원 내 UN 제5사무국의 유치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책적 제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하여 정권에 따라 큰 변동이 없이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북한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성공적인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은 자연적으로 규모의 경제로 발전할 것이다.

둘째, UN 제5사무국의 유치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UN사무국은 먼저 다양한 기구들이 존재하여 그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사무소를 설치·지원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은 물론 세계평화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경우처럼 새로운 국제기구와 유치 명분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UN 제5사무국의 유치를 위해 DMZ 관련부서의 추진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는 각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 지방 자치단체 간에 대한 종합적 조정능력과 예산조정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정부는 물론 국민들은 DMZ 세계평화공원과 병행하여 UN 제5사무국과 같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세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기만술에 말려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에 빈틈을 보인다면 남북 간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최근 북한에 의한 일련의 DMZ 목탄 지뢰, 고사포와 지사화기 발포(2015. 8. 20)로 촉발된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현실이 암울한 면도 있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일사불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이며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냉철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북한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References

- An, Byung Joon. 1997. *International Politics and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of Post-Cold War Period*. Seoul: Beop Moon Co.
- An, Chang Hyun. 2014. Future Roadmap of DMZ Peace Park. *SPACE*. May 2014. Seoul: Space.
- Choi, Chang Hyun, and Jeong, Si Gu. 2015. *C-P-N-D ICCT Ecosystem Viewed in Complex*. Seoul: Communication Books.
- Choi, Joo Yong, and Yoo, Sang Gyun. 2015. A Study on the realization for World Ecological Peace Park in DMZ. *Korea Planning Association*. 50(1): 105-114.
- Chosun Dot Com. 2014. North Korea sent UAV from Military Demarcation Line up(8 April 2014).
- Edward L, Rowny. 2014. *An AMERICAN SOLDIER'S SAGA of the KOREAN WAR*. Jeong Soo Young trans. Seoul : whoiam.

- Hankyoreh Newspaper. 2015. Jim Rogers, Global Investment, We Want to Invest in Property around the North(6 May 2015).
- Jeon, Bong Geun. 2014. *Situation Change Scenarios and Trust Process Implementation Strategy from Kim Jong-un North Korean*. Seoul: Foreign and Security Institute.
- Jeon, Kyung Joo. 2013. *The Korean Peninsula Peacemaking and DMZ World Peacemaking*. Seoul: Korea Defense Institute.
- Jeong, Si Gu. 2014. A Study on the Senior Administration's Policy of Neutrality of Late Chosun. *Journal of Korea administrative History*. 35(1). 49-75.
- _____. 2015. A Study on the Disaster Control Tower from the Boundary Spanning Units.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1(5): 1-25.
- Jo, Seok Joo. 2013. Maul Community and the Saemaul Movement. *Self-development*. 19(12): 31-38.
- Joong Aang Newspaper. 2015. President Park's proposal is north-south waterway linking to relax 70 years(13 April 2015).
- Keast Robyn, Mandell Myrna, and Robert Agranoff. 2014. *Network Theory in the Public Sector: Building NNw Theoretical Frameworks*. New York: Routledge.
- Kim, Gee Hyup. 2011. *Liberation diary 1: Liberation is like a thief*. Seoul: Pyung Dan Cultural co.
- Kim, Jae Han. 2014. Trust and Peace, Hope of DMZ World Peace Park. *Unification Road*. 306(1): 22-30.
- Kim, Jeong Hoon, and Kim Jee Dong. 2014. Globalization Strategy of Peaceful Use of DMZ: Focused on Making it International Peace Park and International Tourism. *Journal of Northeast Asia Korea*. 70(1): 265-277.
- Kim, Nan Yong. 2010. A Study on the Ecological Tourism Resources of Demilitarized Zone for Foreign Tourists. *Journal of peace studies*. 11(3): 55-75.
- Kim, Sang Won, and Lee, Jeng Man, and Kim, Jeong Mee, and Lee, Jong Yong. 2012. A Study on the Creative Play Case for the Cultural City Area Size. *Korea Education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tudies*. 55(1): 343-363.
- Kim, Soung Wan, and Lee, Kwang Won. 2014. A Study on the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0(7): 53-73.
- Lee, Chan Hee. 2013. World Peace Park Project Method and Ecological Value of DMZ. *Designation of DMZ World Peace Park and Policy Forum f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Hosted by Kim Moo-sung, and Seo Young-gyo who are Parliamentarian.
- Lee, Gee Dong. 2013. A Trust as Integral Capital and Political Trust-building. *Journal of peace*

- studies*. 14(5): 219-223.
- Lee, Hun Kyung. 2014.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Further Approaches for the WMD and Missile Non-proliferation. *Korean Research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0(8): 153-168.
- Lee, Hyo Won. 2014. Legal Basis on World Peace Park in DMZ. *Seoul Law Journal*. 55(1): 377-408.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4. *Diplomatic White Paper 2014. -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5. Effective ODA Project Implementation. <http://www.mofa.go.kr/new>(Search Date: 20 April 2015).
- Ministry of Unification. 2015. <http://www.unikorea.go.kr/content>(Search Date: 20 April 2015).
- Mulford, Charles L. 1984.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Implications for Community Development*. New York: Human Sciences Pr.
- Nelson J. Patten, and Bryce C. Nugent. 2010. *National Security: Institutional Approaches, Policy Models and Global Impacts*.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 North Chosun Central News Agency(23 January 2013).
- North Chosun Newspaper(13 June 2013).
- North Korea Newspapers(28 December 2011).
- Park, Chan Ryong. 2014. Study on Establishment of the Saemaul Movement ODA Model. *Journal of Koran Local Government studies*. 15(4): 115-130.
- Park, Heung Soon. 2015.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ucement Plan for settling the Korean Peninsula : Challenges and Problems Related to Attract DMZ Peace Park. *Kit of Unification of 2015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Peace Symposium*. 11-27.
- Russell M. Linden. 2010. *Leading Across Boundaries: Creating Collaborative Agencies in a Networked World*.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 Segye Newspaper. 2014. The best place of the Fifth UN Office Position, is DMZ of the Peninsula(7 June 2014).
- Seong Dae Seok. 2014. *Heart of Asia, Peninsula UN Headquarters*. Seoul: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 Song, Yong Sun. 2015. *Dedication 392*. Seoul: Korea Constitution Association.
- Ueom, Tae Am. 2013. *Northeast Asia's Peace Cooperation Conception of Park Geun-hye Government: Prospects and Strategies*. Seoul: Korea Defense Institute.
- Valérie Gelézeau. 2014. The perspective of cultural geography on the changes in Korean border

region during the Sunshine Policy (1988-2008). *Journal of ethnic culture studies*. 63(1): 247-278.

World GDP Ranking. 2015. IMF Home page(<http://www.imf.org>).

Yaziji Michael and Doh Jonathan. 2009. *NGOs and Corporations: Conflict and Collaboration*. New York;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Yunhap News. 2015. The Government, Fertilizer Aid to North Korea, the First Time after 5·24 Measures(27 April 2015).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김기협. 2011. 해방일기1권: 해방은 도둑처럼. 서울: 평단문화사.

김난영. 2010.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무장지대의 평화 생태 관광자원화 연구. *평화학연구* 11(3). 55-75.

김상원, 이정만, 김정미, 이종영. 2012. 문화도시 공간규모에 따른 창조적 재생 사례 연구.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55(1): 343-363.

김승환, 이광원. 2014. 공적개발원조(ODA)에서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7): 53-73.

김재한. 2014. 신뢰와 평화, 희망의 DMZ 세계평화공원 306(1): 22-30.

김정훈, 김지동. 2014.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 : 세계평화공원화·국제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0(1): 265-277.

노동신문. 2011. 12. 28일자.

박찬용. 2014. 새마을운동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추진 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5(4): 115-130.

박홍순. 2015. 한반도 정착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 조성방안: DMZ 평화공원조성 관련, 유치 필요성 및 과제. 2015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실현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11-27.

발레리 줄레쥬. 2014. 햇볕정책(1998-2008)이 남북한 접경지역 변화에 미친 영향-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민족문화연구* 63(1): 247-278.

성대석. 2014. 아시아의 심장 한반도 UN본부. 서울: 한국언론인협회.

세계일보. 2014. 유엔 제5사무국 입지, 한반도 DMZ가 최적지. 2014. 6. 7일자.

세계 GDP 순위. 2015. IMF홈페이지(<http://www.imf.org>).

송영선. 2015. *헌정392*. 서울: 대한민국헌정회.

안병준. 1997.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통일*. 서울: 법문사.

안창현. 2014. *DMZ 평화공원의 미래 로드맵. SPACE공간*. 서울: 공간.

연합뉴스. 2015. 정부, 5년만에 대북 비료지원...5·24 조치 후 처음. 2015. 4. 27일자.

- 엄태암. 2013.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전망과 추진전략.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에드워드 L. 로우니. 2014. 정수영 역. 운명의 1도. 서울: 후아이엔.
- 외교부. 2014. 2014 외교백서-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서울: 외교부.
- 외교부. 2015. 효과적 ODA사업 시행. <http://www.mofa.go.kr/new>(검색일: 2015. 4.20).
- 이기동. 2013. 통합자본으로서의 신뢰와 남북한 정치적 신뢰형성 방향. 평화학연구 14(5): 219-223.
- 이찬희. 2013. DMZ의 생태적 가치와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 DMZ 세계평화공원 지정과 다자간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김무성·서영교 주최.
- 이효원. 2014. DMZ 세계평화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서울대학교법학 55(1): 377-408.
- 전경주. 2013. 한반도 평화조성과 DMZ 세계평화조성.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전봉근. 2014. 김정은 체제하 북한정세 변동 시나리오와 신뢰 프로세스 이행전략. 서울: 외교안보 연구소.
- 조석주. 2013. 마을공동체와 새마을운동. 자치발전 19(12): 31-38.
- 정시구. 2014. 구한말 고위직의 중립화론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5(1): 49-75.
- 정시구. 2015. 경계연결단위로 본 재난 컨트롤타워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11(5): 1-25.
- 조선닷컴. 2014. 北 무인기 군사분계선서 전방부대서 보내. 2014. 4. 8일자.
- 조선신보. 2013. 6. 13일자.
- 조선중앙통신. 2013. 1. 23일자.
- 중앙일보. 2015. 박 대통령 남북 잇는 물길로 70년 긴장 풀자. 2015. 4. 13일자.
- 최주영, 유상균. 2015.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실현 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0(1): 105-114.
- 최창현·정시구. 2015. 복잡계로 바라본 C-P-N-D ICCT생태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통일부. 2015. <http://www.unikorea.go.kr/content>(검색일: 2015. 4. 20).
- 한겨레신문. 2015.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 북한에 전 재산 투자하고 싶다. 2015. 5. 6일자.

정시구: 와세다대학정치학 박사연구과정 수료, 단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논문: 경계연결활동에서의 조직구성원 불신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2년 2월), 현재 선문대학교 건학이념연구원 및 문화콘텐츠학과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위기갈등관리, 정부조직관리, 복잡계이론, 한류문화콘텐츠 등이다. 저서로는 “아카데미행정학”(공저, 2011, 고려리더스), “복잡계로 바라본 C-P-N-D ICCT생태계”(공저, 2015, 커뮤니케이션북스),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비밀”(2013, (주)국학자료원), 구한말 고위직의 중립화론에 대한 연구(2014, 한국행정사학지), 한국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연구(2014, 한국공공관리학회), 미국상원과 한국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비교연구(2015, 대한지방자치학회) 등 그 외의 다수의 논문이 있다(jsg9277@sunmoon.ac.kr).

